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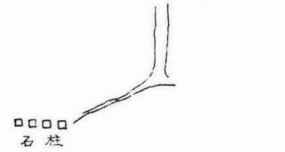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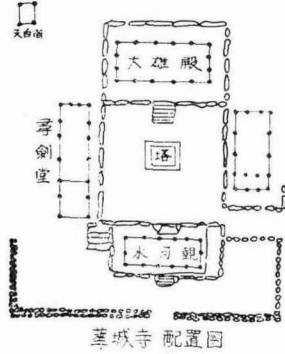
이라고 있어 크기가 大體로 符合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調査에 期待하는 수 밖에 없다.

環城寺大雄殿과 尋劍堂

申 榮 勳

一九六三年二月 同人 鄭永鎬 金和英 兩氏와 더불어 慶北古蹟을 踏査하는 路中 環城寺를 尋訪할 수 있어 兩氏의 配慮를 받으며 大雄殿과 尋劍堂을 調査할 수 있었다(永川郡河陽面沙器洞).

大雄殿은 巨石亂層쌓기한 石壇위에 따로 基壇을 마련하고 거기에 五間(約 三九·二七尺) 三面の (約 三一·三一尺) 平面으로 지은 法堂이다. 平面構成은 多包建物の 通性인 外平柱 內高柱群으로 形成되었다. 柱身에는 배흘림이 있고 귀기둥은 一寸의 膨大과 귀솟음이 있다(柱徑 九·三寸) 前面五間에는 모두 떠살무늬의 分閣門을 달고 門引枋 위로 昌枋과 平枋을 짜들렀다. 栱包는 外三出目內四出目으로 多包를 密組하고 各長舌사이에 巡閣天井을 바쳤다. 처마는 겹처마, 서까래는 斷面이 圓形인 것이나 浮椽은 高가 낮고 幅이 넓은 것이고 착고도 착고맥이와 平交臺를 한몸으로 만든 것이다. 지붕은 팔작기와 지붕이나 별다른 裝飾은 없고 夫女莫斯瓦만이 있다. 閣閣에는 卒臺木을 단 博風板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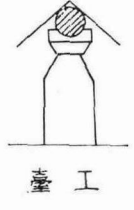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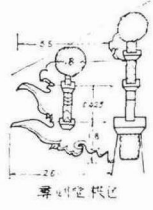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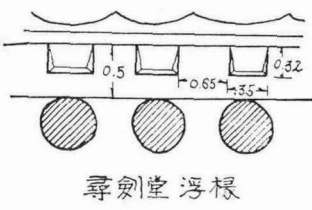
內部構造도 一般的인 樣式으로 前平柱로부터 內高柱(佛壇左右의 高柱)에 걸쳐 大樑을 걸고 內

高柱와 後面平柱上에는 退樑을 架構하였다. 側面에서 올라오는 樑樑이 大樑中間에 結構되었으며 大樑以上の 架構는 우물천정으로 가렸다. 中央格子內에는 圓形 板刻으로 加飾하였다. 中央間高柱前에 寶蓋를 만들고 그것을 나양각으로 장식하였다. 바닥은 板床 우물마루 그 中央 寶蓋下에는 須彌壇이 있고 壇上엔 佛像이 奉安되어 있다.

尋劍堂 大雄殿前庭向左側 基壇上에 建立되었다. 맞배기와 지붕으로 正面四間側面三間的 規模인데 最近에 一間을 添構하여 廚房으로 使用하고 있다(現在 寮舍로 使用하고 있음). 堂은 原來부터 居室로 使用하기 위하여 있었음인지 溫突을 施設하고天井도 紙天井을 하여 內面을 모두 가리고 있다. 軸部의 構成이나 架構·栱包는 素朴한 柱心包의 類인데 여러部分에 注目할만한 部材가 挿入되어 있다. 特히 臺工이나 栱包 그리고 軒은 他建物과 相考할 만한 樣式을 具備하고 있다.

大雄殿과 尋劍堂은 多包系와 柱心包系로 그類는 다르나 細部樣式에서는 許多한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이 共通點에서 李朝初期의 樣式을 抽出해 낼 수 있지 않을까 希望하고 있는데 이는 大雄殿은 鳳停寺 大雄殿이나 서울南大門 等の建物과 比較되고 尋劍堂은 開心寺 尋劍堂(成化十三年)이나 松廣寺 國師殿等에 類似하기 때문이다.

紙面關係도 있고 하여 詳巧할 수 없어 未洽하나 그 概略을 紹介함에 三 精査後 細部考察은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同寺는 關野貞氏等の 調査를 거친 듯 하나(朝鮮古蹟圖譜에 寫眞掲載된 그



說明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고 文獻等에도 별다른 言及이 없는 듯하다 (輿地勝覽에는記載되지 않음) 단지 崔南柱氏가 同寺를 調査한 후 大雄殿을 李朝中期의 建物이라고 判定하였다 하나 그 根據를 알 길이 없다(本誌三卷十一號 卍一六)。

同寺 石垣 綠草地帶에 石柱 四本(崔南柱氏幢竿說은 誤謬인)이 있어 注目되는데 이는 그 彫刻된 手法이라던지 樣式으로 보아 一柱門(例 梵魚寺一柱門)이었던 듯 하나(同行人의 衆論) 그것은 따로 重要한 것이라 생각된다.

任實의 石佛 二軀

鄭 永 鎬

全南任實郡內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石佛二軀가 있어 지난 六月初에 現地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調査에는 梨大博物館의 秦弘燮教授를 비롯 金和英、柳英子諸氏와 同行하여 많은 助言을 받았다. 깊은 感謝를 드린다.

一、二道里 石佛坐像

任實邑에서 徒步로 約一·五km 「동막골」貯水池 옆 山麓에 외판草 家집(金氏宅)이 한 채 있고 여기서 約三十m 떨어진 山 밑墓地 위에 石佛一座가 있는데 原位置는 아니다. 坐像과 光背가 一石으로 되어 있으며 全面에 磨損이甚하여 各部의 彫刻이 뚜렷치 못하고 頭部에 더욱 破損이甚하여 相好等 알 수가 없다. 法衣는 通肩으로 左腕을 걸쳤으며 胸前에는 衣帶가 보인다. 귀는 긴편이고 右便이 完全하며 右手는 들고 左手는 무릎위에 놓은 듯 하다. 左足은 右膝上에 놓인 것이 뚜렷한데 右足은 磨損으로 分明치 않다 光背는 圓形으로 上部가 破損되었 으며 周緣에 一條線과 火焰의 痕跡이 보인다. 佛像下部가 若干 埋沒되었고 蓮華座等은 없는 것 같다. 全面에 破損이 많으나 兩腕의 曲線

은 注目되는 手法이다 年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 全高一三八·五(像高一四·五 肩幅五〇 膝幅七二 頭高三二 胸幅三二·五 光背幅七三·五)이다.

二、觀月里 石佛立像

屯南面契樹里에서 下車하여 河川을 건너 觀月里洞內로 들어가면 뒷 山기슭에 單間一屋이 보이는데 立佛은 이 안에 奉安되어 있다. 原位置인 바 現在 이 곳에는 老婆가 이 집을 法堂삼아 佛像을 禮拜하고 있는데 이곳 朴陽植氏(老婆의 子)말에 依하면 露天에 放置되었던 것을 約五年前 現在의 建物을 지어 兩露를 막고 있다는 바 때로는 信徒들의 佛供도 있다고 한다. 狹少한 房에서 또는 여러가지 器物的 障礙와 特別 老婆의 反對로 調査에 隘路가 많았다. 腰部以下는 埋沒로 調査가 不可能하며 光背上部는 建物로 因하여 困難하였다. 光背와 立像이 一石인 巨像인데 露出된 部分은 完全한 편이다.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으며 兩耳가 壯重하나 긴편은 아니다 三道가 있으며 白毫는 없고 鼻部와 右便耳朵에 若干의 磨損外에는 各部가 整齊되어 있다. 通肩의 法衣는 胸前에서 다시 放射形으로서 밑으로 흘렀고 兩手는 臍前에서 뭉은 듯한데 法衣안 內이어서 衣文만이 보인다. 光背는 舟形擧身光으로 周緣에는 火焰과 雲文 그 안쪽으로는 花文等이 線刻 되었다. 頭部周緣에는 一條線이 있고 그 周邊에 蓮瓣을 들렸으며 그 밖에 二條線이 陽刻되었는데 어깨에서 다시 二條線이 내려져 身光이

